

지역 소식통

김제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김제시가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백구면 백구농공단지 및 백구정 마을 외 11개마을을 대상으로 농어촌마을 하수도 공사를 추진한다.

하수처리장과 오수관로등 공사가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56억원이 투입되어 금년 9월 착공예정이며,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백구농공단지 및 백구정 외 11개 마을 674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시설(410톤/일 규모)과 하수관로 (18.7km)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마을하수도 시설이 없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던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소 등 주거환경개선과 새만금 유역 수질오염을 예방하는데 효과도 기대되고있다.

/김제=곽노태기자

금구면민의 날 행사준비 만전

김제시 금구면은 지난 21일 금구면민의 날 행사 준비를 위한 금구면 발전협의회 월례회의를 가지는 등 금구면민의 날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제11회 금구면민의 날 세부계획을 확정하는 자리로 면장 및 금구면 발전협의회원 3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면민의 날이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열린 논의를 펼쳤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금구면민의 날 행사는, 주민 2,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화합의 장으로 여성활차름, 어르신 고리걸이 등 면민이 하나 되는 명랑운동회와 라인댄스, 생활체조 등 지역 내 활동하는 동호회 장기자랑, 특히 큰 호응을 받는 면민 노래자랑으로 이루어진다.

/김제=곽노태기자

김제경찰서, 대형교통사고 예방 포트홀(Pot-Hole) 보수

김제경찰서는 21일 오전 10시께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상정교차로 주변에 발생한 포트홀(Pot-Hole)에 대한 즉각적인 보수로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전개했다.

포트홀(Pot Hole)이란 도로 표면이 내려앉아 생긴 구멍을 가리키는것으로 최근 국지성호우로 인한 도로 표면에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번 포트홀(Pot Hole)이 발생한 장소는 김제와 익산을 연결하는 23호 국도로 하루에도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김제시 관내 주요도로다. 김제경찰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도중 포트홀을 발견 도로관리청과의 비상연락 체제로 즉각적인 보수가 이루어진 것이다.

/김제=곽노태기자

주민참여예산 내년 68억 반영

완주군, 이달 말까지 읍면 토론회·위원회 개최... 제안사업 심의

완주군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 사업을 결정할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및 위원회를 개최한다.

22일 완주군은 오는 31일까지 사업 제안자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읍면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및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3개 읍면이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68억5,000만원에 이르는 2018년도 완주군 주민참여예산 반영 대상사업이 결정된다.

앞서 완주군은 지난 8월 16일부터 7월 16일까지 31일간 627건 333억 8,700만원 상당의 주민제안사업을 접수했다.

이번 2차 읍면 위원회에서는 1차 심의회를 통과한 460건 148억 8,700만원 규모의 제안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완주군은 이번 심의회를 통과한 제안사업에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토론회와 심의를 거쳐 추진부서의 타당성 검토 후 최종적으로 2018년 본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주민참여예산에서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외에 지역주민의 생활복지와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사업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적극참여를 유도해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을

통해 만들기 때문에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곳에,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게 하는 장점이 있다"며 "예산부분에 있어 주민의 권리와 행사를 관념적 구호가 아닌,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주민참여 예산제를 필두로 주민 중심의 행정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기자

“별 따러 오세요!”

26일 국립전북기상과학관 별나라 여행축제 개최

제17회 별나라 여행축제가 오는 26일 국립전북기상과학관(공설운동장 인근)에서 열린다.

정읍천문연구회(회장 박경철)가 주관한 행사는 정읍시와 정읍교육지원청, 국립전북기상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정주고등학교 천문연구동아리 '혜성'이 후원한다.

'별, 우주를 꿈꾸며'를 주제로 진행되는 행사에는 학생과 시민, 천문연구회 회원 등 2,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올해 행사는 올해 1월 정식 개관한 국립전북기상과학관에서 열리는 데다 정읍지역 천문 연구와 기상 과학 연구에 한층 더 의미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는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된다.

정읍천문연구회 회원들이 평소 익힌 실력으로 직접 별자리를 설명하고 천체 망원경을 조작하여 참가자들이 천체를 관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간에 진행되는 1부 행사에서는 과학관에 있는 250mm 굴절 망원경을 비롯 보조망원경으로 태양의 흑점과 흑연, 금성과 화성을 관측한다.

또 밤의 2부 행사에서는 달과 금성, 화성, 천왕성과 사진으로만 보았던 은하와 성단, 성운 등을 관측하는 등 우주의 신비로움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체험활동으로는 망원경 만들기과 천체 투영실과 기상 캐스터 체험 등이 진행된다.

천문연구회는 "앞으로도 전북기상과학관과 더욱 긴밀하게 협조해 그간 정읍에 한정돼있던 별나라여행 축제를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시켜 가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정읍=김태환 기자

완주군, 2년 연속 공공주택 공모사업 선정

완주군이 2년 연속 국토교통부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22일 완주군에 따르면 최근 고산면 공공주택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지난해 소안면 선정에 이어 2년 연속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완주군은 지난 6월 공모사업을 신청, 현지실사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 심사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완주군은 LH한국도주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와 협약을 통해 약 168억의 사업비를 들여 100세대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

올 연말 LH와 협약을 체결해, 내년 초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19년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시작한다.

완주군은 오는 2020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단순히 주거 목적을 위해 건립되는 기존 공공임대아파트와는 달리 주민과 지자체, LH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주변지역의 기반시설정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연계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고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실질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지역의 주민들과 계획수립 단계부터 같이 고민하고 분야별 사업들을 함께 추진해 사업내용에 내실을 기할 것이다"며 "앞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직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기자

김제지평선아카데미, 이종수 변호사 초청 강좌

내일 김제시청 지하대강당서

김제지평선아카데미가 24일 오후 3시부터 김제시청 지하대강당에서 법무법인 감사합니다 이종수 변호사 초청해 '알아두면 쉬운 생활법률 상식'이라는 주제로 시민들과 함께 한다.

이날은 실생활에 꼭 필요한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소비자의 권리와 유형 구제방법, 예방과 대응 및 부동산 계약을 통해 보는 부동산 매매, 임대차, 간단한 분쟁 해결방법, 행복한 가정 생활과 법, 상속과 관련된 유언의 효력과 법적 상속 등 어렵고 복잡하기만 했던 법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종수 강사는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 의정부 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여성아동인권 소위원회 위원, 여성,아동 폭력방지 법률지원 변호사단,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족법률지원 변호사단을 역임하고 현재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및 소송구조 활동 및 서울시 여성폭력방지 법률 지원단으로 활동 중이다.

MBC 마감뉴스 인터뷰, KBS 라디오 열린 토론, MBC 여성토론 위드 등에 출연하며 아주대학교, 서울지방변호사회, LH공사 등에서 강의 활동도 활발하다.

또한 이날은 평생학습동아리 '은빛하모니카동아리'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열심히 갈고 닦은 솜씨를 아름다운 하모니카 소리로 들려주는 시낭송회 공연도 함께 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기자

현대차 전주공장, 현혈 통한 생명나눔 행렬 성황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22일 사랑의 현혈캠페인을 실시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함께 한 이날 캠페인에는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올해 1월 실시된 1차 현혈캠페인에서도 12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룬 바 있다.

이 같은 직원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에 힘입어 공식집계가 시작된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간 현혈 참여인원 누계 5,000명 돌파라는 의미 있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현혈을 통한 소중한 생명 나눔에 보다 많은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랑의 현혈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 회사 사랑의 현혈캠페인 파트너 기관인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 따르면 최근 현혈 참여 인구 급감에 따라 전북지역 혈액 수급 시장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며, 긴급수혈 등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완주=이종복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군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략산업과
063-430-2951